

# 코오롱, 전자소재 타고 매출 2조원

2009년 11.3% 증가 2조2152억원 ... 영업이익은 43.7% 늘어 1799억원

코오롱인더스트리는 전자소재 및 화학부문 호조에 힘입어 2009년 매출이 2조원을 돌파하는 기업을 토했다. 코오롱은 2009년 매출이 2조215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11.3% 증가했다고 1월27일 발표했다.

영업이익은 43.7% 증가한 1799억원, 순이익은 4% 증가한 981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.

코오롱 관계자는 “광학필름, 전자소재, 화학부문의 고부가제품 매출확대 및 FnC 합병 효과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향상됐다”고 말했다.

또 “2010년에는 전자소재 및 태양광 필름, 에폭시 수지(Epoxy Resin) 등 신소재 사업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”이라고 덧붙였다.

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09년 12월 31일 코오롱의 존속회사인 지주회사와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 사업회사로 분할되면서 신설됐으며, 상기 영업실적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사업부문에 대한 것이다. <저작권자 연합 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1/28>